

『참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새 봄』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3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3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올 한 달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본질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명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1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결과로 얻게 된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 불리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3040 세대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족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3040 세대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족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4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은 육체적, 영적으로 탈진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힘이 세다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는 이를 '영적 수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공급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혹은 우리 마음의 수도꼭지를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내 힘으로만 살려 하거나 믿음이 없어 구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봅시다. 내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려 애쓰던 삶에서, 먼저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거뜰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먼저 부르짖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9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경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존재, 즉 이웃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식민지 지배자라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만큼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선행은 지역의 어른들인 유대인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그의 간절한 사정을 대변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백부장처럼 주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착한 행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함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울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40 세대 가정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단순히 착한 가정을 넘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흘러가 대대로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2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나 혼자뿐인가?"라는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자녀 교육의 부담, 직장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으로 아우성치는 세상 소리에 파묻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며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2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위기 앞에 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친히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간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고난주간의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14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늘 고백하는 표어인 "근원(본질)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가장 깊게 울려 퍼져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3040세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화려한 성취를 꿈꾸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본질을 놓치고 겉데기뿐인 성공을 좇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고난주간은 우리 가정을 다시 영적인 반석 위에 세울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겪는 크고 작은 회생과 섬김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이웃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작은 나눔들이 모여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빚어갑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흐르게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우리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가족 모두가 동참하여, 4월의 새 아침을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가정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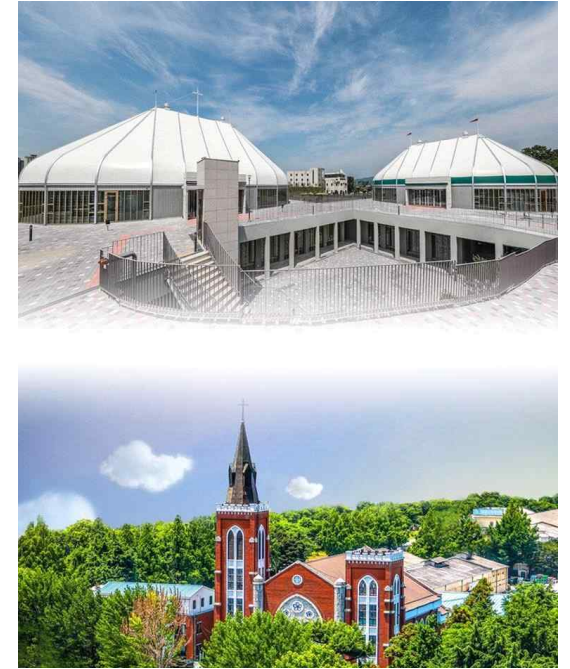
본문 나누기
각자 목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간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